雲谷書院誌 ④

(운곡서원지)

권혁무 (운곡서원 관리위원, 전-좌윤공파 종무위원)

경북도 일대의 후손과 유림이 동원되어 소장을 올리고 백방으로 총력을 기울여도 난공불락으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이 송사가 이처럼 일거에 역전되어 타결된 데에는 비화로 전해오는 일화(逸話)가 있다. 처음에 통도사의 총섭승 고산(古山)에 의해 투옥되어 고초를 받고 1천3백 냥이나 되는 속전(贖錢)을 강탈당한 34세손 권의일(權宜一)은 추원사를 창건한 주역 갈산(葛山) 권종락(權宗洛)의 증손이다. 갈산의 주손(冑孫)인 권의일이 이처럼 심한 박해에 처하자 그 조카인 국포(菊圃) 권옥영(權玉永)이 설분(雪憤)을 위해 백방으로 분주하다가 힘에 밀려 요로의 관부(官府)가 모두 약탈하는 승도(僧徒)의 편당이 되자 저간의 소장과 문건을 싸들고 상경(上京)하여 당시로서 권문의 최고관인 의정부 찬정 경농(經農) 권중현(權重顯)을 찾아갔다.

그러나 당시의 풍속으로 서울의 대신 집은 누구를 막론하고 쉽사리 들어가 면회를 청하여 면대하고 출입하는 처지가 아니었다. 국포는 경농(經農)의 집 행랑에 면회를 청하여 머물면서 자그마치 한 달을 기다려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가 경농(經農)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건을 내놓고 피맺힌 분한을 토설(吐舌)하니 경농이 앙천탄식(仰天嘆息)하면서 스스로 그런 변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자손된 도리를 못한 것을 자책하고, 즉석에서 소개장을 써서 그 일의 소관 부처인 관리서(管理署)의 책임자인 관리(管理)가 바로 자기의 족제(族弟)라면서 바로 찾아가 청원 수속을 밟으라 하고, 일변 스스로 소두(訴頭)가 되어 일의 광정(匡正)을 청원하는 연명의 단자(單子)를 내부(內部)에 올려 철벽같이 막혔던 것이 일사천리로 뚫렸다는 것이다.

일이 이렇게 하여 일단락되고 단소는 다시 봉축(封築)되었으며 담장을 두르는 공사를 마치자 이듬해인 광무 7년 1903년 봄에 사림(士林)이 일제히 모이는 제회(齊會)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해에 봄철로 한 번의 제의(祭儀)를 유림의 행사로 단유에 드릴 것을 발론하니 사림이 이를 숭봉키로 하고, 과거에 사당에서 쓰던 상향 축문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축식(祝式)을 바꾸었다. 그 바꾼 축식은 역시 단향(壇享)의 상향축(常享祝)으로서 지난해에 의정부 찬정 권중현(權重顯)이 지어 보낸 것을 채택하니 다음과 같았다.

"오오, 빛나는 태사공께서 덕을 베풀고 빛을 넓히사 권성(權姓)을 받아 비롯하시고 고창(古昌)을 식읍으로 받으시니 높은 산이 와서 멈춘 듯 우러러보이는데 운곡의 양지쪽에 사당이 있어 익연(翼然)하고 조두(俎豆)를 여기에 받드는데 공의 두 후손으로 오도(吾道)의 종장(宗匠)인바 충의의 표상은 죽림(竹林)이요 학덕으로 추중(推重)함은 귀봉(龜峯)이라 이미 선조의 제사를 높임에 배향으로 받들어 종사(從祀)하니 숙숙(肅肅)한 가범(家範)에 예용(禮容)이 질질(秩秩)히 정연하였는데 운수가 비색(否塞)하여 사당을 철거하니 감개가 더욱 깊어 이에 제단과 울타리를 쌓았습니다. 우리 사림(士林)이 위로하여 능히 향의(享儀)를 정성으로 받듦에 예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사오니 신께서는 생각하고 이르시어 바라건대 형작(泂酌)을 흠향하소서."

이후로 일제시대에도 이곳의 단향(壇享)은 봄철 3월의 초정일(初丁日)에 한 번씩 계속해왔다. 그러다가 乙酉年(1945) 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여 이를 정지하게 되었다. 이때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엎드려 아뢰건대 인물은 다 없어지고 시대를 어루만져 생각하며 탄식하옵는데 선현께 예로써 보답함에 감히 구차하고 간략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여러 사람과 묻고 의논하여 잠시 상천(常薦)을 정지하고 다시 시의(時議)를 기다려 첫 전장(典章)을 모두 말미암고자 하면서 이로써 그 사유를 아뢰옵자니 두렵고 슬픈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丁亥年(1947) 3월에 복향(復享)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유하였다. "엎드려 아뢰건대 봄철에 항상 천향(薦享)함이 그 옛 장전(章典)으로 있었사온데 지난 세월 동안 정지하였으니 이보다 세상이 상패(傷敗)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소 안정됨으로 인하여 밝히 향사(享祀)를 이어 받들고자 감히 그 사유를 아뢰어 삼가 고하고 정성으로 고하옵니다."

병신년(1956)에 안동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 태사묘(太師廟)가 경인년(1950) 6·25사변으로 파괴된 것을 중건할 것을 결의할 때에 추원사의 중건도 발론이 되었으나 착공에는 미치지 못했다.

경자년(1960) 음력 10월에 능동재사에서 태사 묘소의 묘사를 지내고 음복(飮福)하는 자리에서 능동재사를 수리하기로 의논을 정하고 운곡사(雲谷祠)를 다시 세울 일을 의논하였다.

4년 전 태사묘를 중건할 때에 발론한 것인즉 일을 마땅히 합병하여 의논을 정해야 한다면서 다음달 11월에는 경주로 통문을 보내 운곡의 별임유사(別任有司) 권혁창(權赫昌) 등을 안동으로 불렀다. 안동에서는 12월 10일에 태사묘의 숭보당(崇報堂)에서 이 일로 종회를 열었다. 여기에 경주에서는 권영태(權永泰)가 권혁

창과 함께 참여하였고 능동의 재장(齋長) 권태억(權泰億)과 별임 권영준(權寧浚)·권태홍(權泰鴻) 및 태사묘의 별임 권정현(權井鉉)과 각파 문중의 대표 30여 명이 모여 중건 대책을 논의하였다.

신축년(1961) 정월 25일에는 안동 태사묘의 숭보당에서 대종회를 열어 각도에서 온 후손 대표 1백여 명이 모여 능동재사의 수리와 추원사를 중건할 일을 만당일치(滿堂一致)로 결의하고 그 취지의 통문을 제작하여 두루 국내에 고해 알렸다.

이때의 통문을 채산(蔡山) 권상규(權相圭)가 지었는데 거기에서 '옛적의 선대 부로(父老)들은 황공하게 슬픈 마음으로 존모(尊慕)함을 일으켜 경주의 운곡에 추원사를 창건하여 태사부군을 마땅히 제사하고 죽림과 귀봉 두 공을 배향하였으니 근본에 보답하고 현인을 지키는 의리가 가히 백세에 탁월하여 자손이 본받아 지킬 바였는데 불행히도 국가에서 금지하는 조항에 걸려 훼철되어 단소를 설치하고 향사를 드려 다만 옛 제도를 겨우 유지하는 뜻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향을 올릴 뿐이니 조두(俎豆)를 올리던 옛 자리는 황폐하여 잡초가 자라는 터가 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동남 지역 선비들이 한 가지로 가려 지적하면서 탄식하는 바이거늘 하물며 후손된 자로서 울읍(鬱邑)한 마음을 품는 것이야 당연히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세도가 일변한 것을 보면 국금(國禁)이 해이해져 선현의 철폐된 서원이 차례로 회복되어 제향을 받들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추원사만이 황량한 폐허로 일임(一任)되어 있으니 이는 비단 정성이 부족함에서일 뿐만이 아니라 실로 재력이 펼쳐지지 못함에서인 것입니다.

오호라, 무릇 우리 권씨로서 나라 안에 번연(蕃衍)하게 퍼진 자가 그 수를 수 만(數萬)으로 헤아리는데 재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핑계하니 이는 비단 내심으로 부끄러울 노릇만이 아니거니와 더욱이 타인에게 알려지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유사(有司)와 규약(規約)을 정하고 일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몇 달 만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내외 사정이 격변하는 외에 중건회(重建會)의 총무가 사망한 관계로 일이 중단되어 부진(不振)하였다.

임자년(1972) 음력 10월에 능동의 구신도비(舊神道碑)에 비각(碑閣)을 세워 낙성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일교포(在日僑胞) 제족(諸族)이 추원사를 중건하기로 의논을 정했다. 이때 재일 교포 후손은 능동의 비각 뿐 아니라 청도(淸道)의 봉암재(鳳巖齋)에도 유허비각(遺墟碑閣)을 전담으로 아울러 건립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특별기고

'청백리' 정신과 부정부패에서 '창조적 경제'란 무엇인가?

權仁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참고로 현재 전남 순천은 신라 경덕왕 때 승평군이 되었고, 고려 성종 때 승주목이 되었다. 조선 태종 때 순천도호부가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순천에 왜교성을 쌓고 장기 주둔했다. 조명연합군과 왜군 사이에 최대, 최후 전투가 벌어졌다. 1895년 순천군이 되었고, 1919년 4월 7일 순천부 읍성의 연자루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다.

제주도 4·3 민중항쟁과 관련된 1948년 국군 14연대 여·순 반란사건과 그 진압과정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고려시대 충렬왕3년(1277) 승평도호부사 최석은 읍민들에게 "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에 수령으로 부임해 올 때 내가 타고 온 말이 새끼를 낳아 한 마리가 이제 두 마리가 되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의 탐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돌려주는 말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면서 되돌려 받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내가 더 많은 말을 받고자 탐내서 표면상으로만 사양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말이 낳은 망아지까지 모두 읍민들에게 돌려주었다.

고려 때 승평부의 풍습은 부사(府使)가 돌아가면 양마팔필(良馬八匹;좋은 말 8필)을, 부사(副使)가 돌아가면 양마칠필(良馬七匹)을 선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승평부민들이 관례에 따라 8마리의 말을 최석에게 선물했다. 최석은 이러한 관례가 폐습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서울인 개성에 비서랑(秘書郞;종6품)으로 전직하여 귀경길에 낳은 새끼 말 1마리까지 합해 9마리를 다시 승평부민들에게 되돌려 보냈다. 이때부터 전임자에게 말을 선물하는 폐습이 없어지게 되었다. 최석은 아들에게 청백 외에 다른 재물은 가문의 전하는 바가 아니라고 훈계했고 승평부사로 재직 중에 선정을 베풀어 청백리가 되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순천 고을의 사또(태수;목사;부사;군수)가 떠날 때마다 말 8필을 주는 폐단이 없어졌거니와 순천부민들은 최석의 덕(선정과 청백리 정신)을 칭송하여 기념비를 충렬왕34년(1308)에 세워 주었는데, 이를 '팔마비(八馬碑)'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훼손되자 공민왕14년(1365)에 다시 세웠다. 선조30년(1597) 정유재란 당시 팔마비가 훼손되었으나 광해군8년(1616) '지봉유설芝峯類說'을 지은 실학자 이수광(李睟光1563~1628)이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다음 해(1617년)에 최석의 숭고한 청백리 정신을 기려 팔마비를 복원했다. 이 때 고려 공민왕 때 승평부사였던 최원우의 시를 차운하여, 이수광이 '중건팔마비음기(重建八馬碑陰記)'를 남겼는데, [예로부터 산천이 얼마나 바뀌었던가 / 비석의 터가 없어져 매몰된 지 오래네 / 성명을 다시 돌에 새길 필요는 없으니 / 좋은 일은 서로 전해 입이 곧 비석이기 때문이라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고려 때 청백리 정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관리로서의 최석의 훌륭한 점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양리(良吏;어진 관리) 즉 청백리의 선정기준을 본다면 청렴한데에 가장 중점을 두고, 권력과 부에 아부하지 않는 강직한 성격과 한편으로는 관후한 성격을 갖고 선정을 행하는 것이었다.

원래 팔마비는 순천부읍성 남문 앞에 세워졌는데, 일제가 3·1 만세운동을 하였던 곳이라 하여 시가지 정비를 빌미로 1930년 지금의 순천시 행동우체국 바로 옆으로 옮겼다. 순천 팔마비는 우리 나라 역사상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선정비(善政碑)의 효시이자 최초의 정덕비(貞德碑)로 순천시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고려 청백리로 거론되는 윤해(尹諧, 1231(고종18년)~1307(충렬왕33년)는 본관이 무송(茂松)이고 자는 강재(康哉)이다. 무송현(지금의 전북 고창군일대) 호장(戶長) 윤양비(尹良庇)의 아들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상주사록(尙州司錄)이 되었으며, 뒤에 충렬왕을 시종하여 원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행리(行李;行裝;行具;여행할 때 쓰이는 모든 기구들)의 공용(供用)을 맡아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여 남은 비용을 국고로 돌렸다.

그 뒤 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가 되었다가, 곧 전라도 장흥부의 부사(府事)로 나가 일본 정벌을 위한 여·몽연합군의 전함건조를 감독하였다. 이 일은 충렬왕5년(1279) 원나라가 고려로 하여금 남해안 일대에서 전함 900척을 건조하기를 요구한 때문이었다. 이 일로 순찰사 홍자번(洪子藩)이 천거하여 흥위위장사(興威衛長史)가 되고, 전중시사(殿中侍史)를 거쳐 충렬왕12년(1286) 동계(東界)의 초군사(招軍使)로 파견되었으나, 영월수령을 살해한 적괴(賊魁) 강윤명(康允明)을 잡지 못한 책임으로 파면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解說 孝行篇(續篇)

⊙都氏家貧至孝(도씨가빈지효)라 賣炭買肉(매탄매육)하여 無闕母饌(무궐모찬)이러라 一日(일일)은 於市(어시)에 晩而忙歸(만이망귀)러니 鳶忽攫肉(연홀확육)이어늘 都-悲號至家(도-비호지가)하니 鳶旣投肉於庭(연기투육어정)이러라 一日(일일) 母病索非時之紅柹(모병색비시지홍시)어늘 都-彷徨柹林(도-방황시림)하야 不覺日昏(불각일혼)이러니 有虎屢遮前路(유호루차전로)하고 以示乘意(이시승의)라 都-乘至百餘里山村(도-승지백여리산촌)하야 訪人家投宿(방인가투숙)이러니 俄而主人(아이주인)이 饋祭飯而有紅柹(궤제반이유홍시)라 都-喜問柹之來歷(도-희문시지래력)하고 且述己意(차술기의)한대 答曰亡父嗜柹故(답왈 망부기시고)로 每秋擇柹二百個(매추택시이백개)하야 藏諸窟中而至此五月則完者不過七八(장제굴중이지차오월즉완자불과칠팔)이라가 今得五十個完者故(금득오십개완자고)로 心異之(심이지)러니 是天感君孝(시천감군효)라하고 遺以二十顆(유이이십과)어늘 都-謝出門外(도-사출문외)하니 虎尙俟伏(호상사복)이라 乘至家(승지가)하니 曉鷄渥渥(효계악악)이러라 後(후)에 母以天命(모이천명)으로 終(종)에 都有血淚(혈루도유)러라.

해설: 도씨는 집이 가난하나 효성이 지극하였다. 숯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께 봉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시장에서 서둘러 늦게 돌아오는데 소리개가 별안간 고기를 낚아 채갔다. 도씨가 슬피 울며 집에 돌아와 보니 소리개가 벌서 고기를 집안 뜰악에 던져 놓았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때 아닌 홍시(紅柹)를 찾거늘 도씨가 감나무 수풀에 가서 방황하여 날이 저문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있었더니 호랑이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으며 타라는 듯이 보이는지라 도씨가 타고 백 여리나 되는 산 동내에 이르러 인가를 찾아 투숙하렸더니 얼마 아니 되어 주인이 제사 밥을 차려 주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가 기뻐서 감의 내력을 묻고 자기의 뜻을 말 하였더니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생시에 감을 즐기셨으므로 해마다 감을 이백 개를 가려서 굴 안에 저장해 두었지만 오월이 되면 상하지 않은 것이 7. 8개 정도밖에 되지 아니 하였는데 이번엔 오십 개나 상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므로 마음속에 이상스럽게 여겼더니 이것은 곧 하늘이 그대의 효성을 감동한 것이라 하고 스무 개를 내어 주는 것이었다. 도씨가 감사의 뜻을 말하고 문밖에 나오니 호랑이는 아직도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를 타고 집에 다다르니 새벽닭이 울었다. 그 후에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니 도씨는 피눈물을 흘리었다.

참고: 도씨(都氏)는 이조 철종(李朝 哲宗)때 사람으로써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하다. 무궐(無闕)⇒빠뜨리지 않다. 賣→팔 매, 買→살 매, 炭→숯 탄, 闕→빠뜨릴 궐, 대궐 궐, 누락할 궐, 肉→살 육, 고기 육, 晩→늦을 만, 忙→바쁠 망, 歸→돌아갈 귀,돌아 올 귀, 鳶→소리개 연, 攫肉(확육)⇒고기를 낚아 채가는 것, 攫→움킬 확, 旣→이미 기, 投→던질 투, 버릴 투, 索→찾을 색, 柹林(시림)⇒감나무 수풀, 柹→감 시, 彷→방황할 방, 徨→방황할 황, 彷徨⇒헤메는 것, 日昏(일혼)⇒날이 어두움, 昏→어두울 혼, 날 저물 혼, 屢遮(누차)⇒가로 막는 것, 屢→자주 루(누), 여러 루(누), 遮→막을 차, 가릴 차, 俄而(아이)⇒얼마 안되어서, 俄→아까 아, 잠간 아, 饋→먹일 궤, 진지 올릴 궤, 嗜→즐길 기, 욕심낼 기, 좋을 기, 窟→굴 굴, 움 굴, 顆→머리 과, 덩이 과, 낱개 과, 俟伏(사복)⇒업드려 기다림, 俟→기다릴 사, 기대할 사, 伏→엎드릴 복, 공경할 복, 曉鷄(효계)⇒새벽 닭, 曉→새벽 효, 鷄→닭 계, 天感君孝 (천감군효)⇒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함, 君→임금 군, 그대 군,(여기서는 그대, 너의 뜻으로 해석함.) 遺→끼칠 유, 주는 것, 喔喔(악악)⇒닭의 울음소리, 꼬끼요, 血淚(혈루)⇒피눈물, 血→피 혈, 淚→눈물 루(누).

廉義篇(염의편)

◎이 편(篇)에서는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미덕중(美德中)의 하나인 廉潔-염결-(마음이 깨끗하고 인품이 조촐하여 탐욕이 없음)과 義理를 강조하고 있다. 의리(義理)를 중(重)하게 여기고 청렴결백(淸廉潔白)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다. 선인(先人)들의 행적(行蹟)을 통하여 의리를 지키는 굳은 마음과 염결(廉潔)의 정신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印觀(인관)이 賣綿於市(매면어시)할 새 有署調者以穀買之而還(유서조자이곡매지이환)이러니 有鳶(유연)이 攫其綿(확기면)하야 墮印觀家(타인관가) 어늘 印觀(인관)이 歸于署調曰(귀우서조왈) 鳶墮汝綿於吾家(연타여면어오가)라 故(고)로 還汝(환여)하노라 署調曰(서조왈) 鳶(연)이 攫綿與汝(확면여여)는 天也(천야)-라 吾何爲受(오하위수)리오 印觀 曰 然則還汝穀(인관 왈 연즉환여곡)하리라 署調曰 吾與汝者 一市二日(서조왈 오여여자-시이일)이니 穀已屬汝矣(곡이속여의)이라고 二人(이인)이 相讓(상양)이라가 幷棄於市(병기어시)하니 掌市官(장시관)이 以聞王(이문왕)하야 並賜爵(병사작)하니라.

해설: 인관이 시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라는 사람이 곡식으로써 사가지고 돌아가더니 소리개가 있어 그 솜을 낚아채 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뜨렸다. 인관이 서조에게 돌려보내고 말하기를 "소리개가 그대의 솜을 내 집에 다시 떨어뜨렸음으로 그대에게 돌려보낸다." 하니 서조가 말하기를 "소리개가 솜을 채다가 그대를 준 것은 하늘이 한 일인데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인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의 곡식을 돌려보내리라."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준지가 벌써 두 장이 되었으니 곡식은 이미 너에게 속한 것이니라."해서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다 함께 장에 버렸다. 장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임금님께 아뢰어서 다 같이 벼슬을 주었느니라.

참고: 인관(印觀)과 서조(署調)는 모두 신라 사람으로 추측되나 자세한 것은 미상이다. 廉→청렴할 염(렴), 印→도장 인, 찍을 인, 觀→볼 관, 보일 관, 綿→솜 면, 賣→팔 매, 물건을 팔다, 買→살 매, 물건을 사다, 귀우서조(歸于署調)⇒서조에게 돌려보냄, 署→쓸 서, 마을 서, 관청 서, 調→고로 조, 穀→곡식 곡, 墮→떨어질 타, 屬→붙일 속, 讓→사양 양, 사양할 양, 꾸짖을 양, 환여(還汝)⇒너에게 돌려준다, 還→돌아올 환, 돌아갈 환, 천야(天也)⇒하늘이 하는 일, 하위(何爲)⇒어떻게 하여, 與→더불어 여, 허락할 여, 미칠 여, 곡이속여의(穀已屬汝矣)⇒곡식은 이미 너에게 속한 것이다, 상양(相讓)→서로 양보함, 병기어시(幷棄於市)⇒함께 장에 버리다, 棄→버릴기, 장시관(掌市官)⇒시장을 관리하는 관리, 掌→맡을 장, 손바닥 장, 聞→들을 문, 並→아우를 병, 견줄 병, 賜→줄 사, 내릴 사, 官→벼슬 관, 부릴 관, 爵→벼슬 작, 봉할 작, 술잔 작.

■ 자치통감 이야기

태극전 처마 끝에 자란 영지(靈芝)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영지(靈芝)라는 식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로초(不老草)라고 말하는 만년 장생하는 식물로 알려 져 있다. 당연히 이 영지는 귀한 물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남북조 시기 북위 선무제 때에 그 궁궐인 태극전의 서쪽처마에서 영지(靈芝)가 자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을 길조(吉兆)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감로(甘露)라는 것이 있다. 새벽에 단 이슬이 내렸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는 일이니 감로가 생기면 이를 길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관념을 이용하여 정치적 입장을 바꿔 보려는 사건이 있었다.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난이 평정된 후 지방에 발호하는 절도사들을 통제하려고 환관들에게 군사감독권을 주었다. 그랬더니 환관이 권력을 부리게 되었고 급기야 경종(敬宗)이 환관들에게 죽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그 뒤를 이은 문종은 이 환관들에게 옹립되기는 했지만 끝내 환관들을 제거해 볼 요량으로 뒤뜰에 감로가 내렸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를 핑계로 환관들을 그곳에 모아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뒤 잡이를 당한 사건이다.

어쨌거나 보통으로는 영지나 감로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길상(吉祥)한 일이 나타날 전조(前兆)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다. 북위 황제인 선무제도 이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북위의 선무제는 그의 형 원순(元恂)이 아버지 효문제의 낙양천도를 반대하고 호복을 계속 입다가 폐위되는 일 때문에 태자가 되었다가 황제에 오른 사람이다.

그만큼 정치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태자가 됐고, 또 그의 아버지 효문제가 빨리 죽는 바람에 17살에 황제가 되었다. 등극해 보니 남쪽으로는 새로 등장한 양무제와 대결해야 했고, 또한 촉 지역 문제로 싸움을 지속해야 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다난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선무제는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갖 20살이 넘은 황제는 최광(崔光)을 불렀다. 최광은 당시 이미 56세가 된 어른이었고, 이미 선무제의 아버지 효문제 때부터 북위 최고의 지식인으로 손꼽힌 사람이었다. 중서박사 저작랑에다 이미 국사(國史)를 편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지가 나타난 사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50대후반의 지식인이 갖 20이 넘은 황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다. 설사 영지가 태극전에서 자란 것이 길상한 일의 전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젊은 주군이 생각을 잘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선무제는 젊은 혈기에 잔치를 열고 술 먹기를 좋아하니 이를 계기로 황제에게 권고하는 말을 해야 했다.

"장자(莊子)가 말하는' 열기가 증발하면 균(菌)을 만든다.' 라고 하였으니 부드럽고 연한 생물은 텅 빈 곳과 더럽고 습한 땅에서 자라는 것이어서 궁전의 높고 화려한 곳에서 자라는 것은 마땅치 않은데, 지금 갑자기 그것이 생겼고 그 형상이 무성하니 진실로 기이하기에 충분합니다.""역사적으로 보면 들판의 나무가 조정에서 자라고 들새가 묘당(廟堂)에 들어오는 것은 옛 사람이 모두 패망의 징조로 여겼습니다."그러하니 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은 낮추고 뜻은 높이며 성스런 도(道)를 새롭게 하고, 밤에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절제하라고 하였다.

올바른 충고였다.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점쳐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상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조가 있다고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굴러 오지는 않는 법이고, 나쁜 징조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계기로 분발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